

다산포럼

베들레헴 토굴에 배달된 세 장의 카드



성명 전 서강대 철학과 교수

오늘은 2019년 성탄절이다. 네팔 카필라 왕국에서 태어난 스티드라타 고다마 왕자의 탄신을 배달겨레 전부가 '부처님 오신 날'로 경축하며,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나자렛 사람 예수'의 탄일도 온 국민이 '성탄절'로 함께 반긴다. 참 종교심 깊은 민족이다. '인류 최고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성경은, 예루살렘 가까운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잡자리를 얻지 못한 나그네 여인이 외양간에서 아기를 낳은 밤을, 기원전(紀元前)과 기원후(紀元後)로 인류의 역사가 갈라진 날로 풀이한다. '서기'(西紀)라고 부르는 이 연대를 서양에서는 A.D.(Anno Domini: '주님의 해')라고 표기한다. 신·구교 합쳐 남한 인구 3분의 1이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믿는다니, 오늘도 자정이 가까우면 구교도들은 성당으

로, 개신교도들은 예배당으로 모여들 것이다. 지금처럼 개명된 세상에도, 아프리카에서는 날마다 신생아 9000여 명이 죽고 800여 명의 산모가 출산 중 목숨을 잃는다지만, 마리아는 마구간에서나마 찾아들을 순산하여 구유에 눕혔는데, 그 토굴 장에는 근방에 살면서 밤에도 양 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전사들의 노래를 들었다며 오밤중에 달려오더니, 포대기에 싸여 말구유에 눕혀진 아기를 보고서 자기네가 듣고 본 대로라며 '하느님을 찬미하며 돌아갔다'고 쓰여 있다. 다른 한 장에는, 삼칠일이 지난 즈음에 머나먼 동쪽 나라에서 왔더라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라고 묻는 사람들이 토굴 외양간에 들어오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 이방인들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는 문구도 적혀 있다. 세 번째 성탄카드는 공수특전단이 들고 온 헤로데 명령서였다. 동쪽에서 왔다면 사람들이에게서 '별이 나타난 시간'을 첩보 수집해 둔 헤로데가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들을 모조리 죽여 버려라!'

러던 학술 명령이었다.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2016년 전국 방방곡곡에서 피어오른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자마자 이 나라 70년의 기득권을 장악해 온 반민족 독재 세력이 '베들레헴 학살'을 개시하였다. 유약하게도 촛불을 들어 정권을 교체한 국민을 얼마나 알잡아 봤으면 '혹시라도 저 인물이 커서' 민주주의와 경제 정의 를 이뤄 내고 남·북한 무력 충돌을 막아 낼 희망이 보이는 정치인들을 모조리 제거하는 '사법살인'이 저질러지는 중이다. 김구의 암살, 조봉암의 처형과 장준하와 야당 후보들의 선거 전야 의문사, 장면 암살 시도, 김대중 사형선고, 노무현의 수사와 죽음으로 이어 온, 진보인사들을 상대로 한 작·간첩 사법살인은 지금도 안정정·이재명·김경수 그리고 조국이라는 이름을 묘비명에 새기는 중이다. 1958년의 '진보당 조봉암 사건' 이래로 검찰이 범죄를 조작하면 언론이 나팔을 불어주고 법원이 사형을 집행해 온 무수한 사건이 대부분 무죄한 정치인을 제거해 온 사법부의 범죄 행위로 드러났다. 삼척동자 눈에도 시비가 뻔한 사건이지만 여전히 기득권이 고발당한 경우

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차츰차츰'이라는 변명으로 덮어 주면서, 기득권이 고소한 사건은 검찰을 총동원하여 탈탈 털어 내는 행태를 보면서 지난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는 국민은 탄식하리라. 오죽 분노했으면 어느 언론인이 며칠 전 윤석열 검찰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물었겠는가.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검찰의 무자비한 수사와 '야권'에 대한 관대한 '선택적 수사'의 이유를" 말이다. 더구나 검찰의 트로이목마를 성안까지 끌어들이는 실수로 '청와대엔 캅바람, 한국당에 봄바람'이라는 기사 제목이 버젓이 뜰 만큼 위태로워 보이는 데도 사법 개혁이라는 정도를 거쳐 법기강을 세우겠다는 이 정권, 참 인내로 워 보인다. 지난 반년의 '조국 사태'는 선거 혁명으로 이 땅에서 발본색원될 집단의 정체를 드러냈다. 굳이 성탄절에 맞추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과 삼삼들이처럼 머리가 한데 붙은 법원을 통해서 진보정권에게 가장 파괴범들의 능욕을 끼칠 데지만, 외양간 말구유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그 갓난아기가 인류 역사를 '기원전'과 '기원후'로 가름한 사건을 크리스천들은 기억하리라.

청춘 특·특

'두 번째 삶'을 결심하는 그들



박승규 조대신문 기자

"졸혼에 대한 주변 반응은 어떤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묻거나 상의하지 않았어요. 이외수의 아내로 존재했던 제가 이제는 저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을 뿐이에요." '우먼 센스'에 실린 소설가 이외수의 아내 전영자 씨 인터뷰에서 밝혀낸 내용이다. 지난 4월 이외수·전영자 부부가 결혼 생활 44년만에 졸혼을 선언함에 따라 졸혼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졸혼은 중장년층 부부에게 새로운 이혼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졸혼이란 법적 부부로서 혼인 관계는 유지하지만,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

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결혼을 졸업한다'는 것이다. 이에 많은 부부들이 이혼 대신 졸혼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황혼 이혼'이 급증했다. 통계청이 9월 발표한 '2019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층(만 65세 이상) 남성 이혼 건수는 총 8032건으로 전년 대비 16.7% 늘었다. 고령 여성의 이혼 건수도 4148건으로 전년(3427건)보다 21.0% 증가했다. 이는 전체 이혼 건수 증가율인 2.5%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는 이혼에 대한 인식 변화를 꼽을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유교주의적 사교에 따라 이혼을 꺼리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노년층의 가치관이 유하게 변하면서 이혼을 택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졸혼은 이혼과 다르게 현행 민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개념은 아니다. 그러므로 졸혼을 한다는 가정 하에 보는 합의는 모두 법적인 효력이 없다. 즉, 복잡

한 서류를 작성해 소송 절차까지 밟는 이혼과는 다르게 졸혼은 서로간의 신뢰를 필요로 하는 셈이다. 따라서 평소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다가도 집안의 대사 또는 자녀들의 일이 있을 때는 졸혼 이후에도 연락하며 서로 만날 수 있고, 챙겨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오랜 결혼 생활 과정에서 누적된 배우자에 대한 실망감과 다양한 갈등이 표출된 사회적 현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황혼 이혼 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논문(유순화·정민자, 2018)에서 저자는 "노년기는 결혼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이혼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졸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굳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각자의 '두 번째 삶'을 찾아 떠나는 선택이기에 이혼보다 비교적 덜 불행하게 다가온다. 가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지니고 하루하루 숨가쁘게 살았을 아버지들, 그런 남편을 내조하며 가정과 양육에 헌신하며 꿈을 바꿨던 어머니들이 그동안 잊거나 포기

하고 살았던 본인의 인생을 되찾을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졸혼은 긍정적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긍정적인 시각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졸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은 결혼이 학교 졸업장 따는 것처럼 졸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혼의 미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졸혼을 선언함으로써 민법에서 규정하는 배우자와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 하거나, 이혼이 아니라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노려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나는 그들이 진정한 부모로서 부부로서의 책임감을 다했다면, 뒤늦게나마 '자신'을 되찾으려는 그들의 선택과 앞날을 응원하고 싶다. 다만 그 선택이 편의상 각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포장으로써 이뤄진 것이라면, 또는 다른 가족 공동체의 의견은 존중하지 않고 개인의 해방감과 자유만을 쫓은 결정이라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고

기쁜 성탄, 평화의 소식



양홍 광명시 화평교회 원로목사

면 트리카 숲을 이루고 선물과 카드가 흠수를 이루고 네온사인과 촛불이 별인 듯 명멸하는 속에 흥겹고 다채로운 놀이가 밤을 세워 진행되고 했다. 이런 축하 소동 속에서 끝없이 외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었다. 실로 그것은 그리스도 없는 성탄 축하가 아니었을까. 가난과 주립에서 시달리는 겨레, 짙고와 고독에 우는 이들, 철의 장막 뒤에서 자유를 동경하며 한숨 짓는 형제들, 복지 사회 실현은 아직도 까마득히 멀고 생활난과 물가고로 삶의 주변은 그대로 슬픔에 둘러싸여 있다. 우리 중 풍요와 평화의 착각에서 로마의 농신제 사투르날리아(Saturnalia)를 방불케하는 가장 행렬 같은 성탄 축하를 해도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인가. 고요한 성탄 대신 소란한 성탄으로 변질된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어떻게 성탄을 맞을까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는 이 겨레에게 막막하게 아쉬운 것은 마음과 몸과 생활, 겨레와 국가의 평안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안주할 평화의 땅은 이 지상에 없는 것 같다.

우리는 조용히 2019년 전 그때 씩씩한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싶다. 수도 예루살렘 왕국이 아니고 벉춘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인류의 구세주, 평화의 왕이 탄생했기 때문에 세상을 지으신 이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2000년 전 신화가 아니라 21세기 오늘의 정황인 점에서 그때와 이때는 같은 시대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의 구세주가 탄생했다는 관념적인 성탄 축하보다 실존하는 인간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주님을 영접하는 성탄을 맞고 싶다. '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외로운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성탄이 아쉽다. 깊은 밤, 차가운 빈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가난하고 고달픈 삶에서 살지 않을 수 없다.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는 이 겨레에게 막막하게 아쉬운 것은 마음과 몸과 생활, 겨레와 국가의 평안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안주할 평화의 땅은 이 지상에 없는 것 같다.

나그네의 아들 예수에게 경배한 것이 처음 크리스마스 축하였다는 것은 먼 옛날의 전설이 아니다. 그리스도도 오늘날이런 모양으로 세상에 오시고 이런 이들을 찾아가 이 성탄을 지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세계에서 볼 때 그때나 이때나 동시대적인 역사의 현실이다. 평화의 왕이 오셨다. 그러나 왕이 말구유에 태어나셨다. "강보에 싸여 말구유에 태어난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다"고 한 것이다. 왕도 가난하고 고달픈 나그네의 아들로 당신들보다 더 불행하게 태어났다. 평화는 강자의 지배로만이 이루어지고 힘에 의해서만 누릴 줄 알았는데, 평화의 왕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심으로 참 평화의 복음을 전했다. 인류는 남을 정복해야 자기가 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살리려고 자기를 버리는 길이다 같이 평화롭게 사는 길인 것임을 성탄으로 계시해 보여주신 것이다. 따뜻한 인정이 향기처럼 풍기고 사랑의 손길이 햇빛처럼 퍼져 버림받은 영들도 빠짐없이 미치는 2019년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한다.

다들 '인력이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차츰차츰'이라는 변명으로 덮어 주면서, 기득권이 고소한 사건은 검찰을 총동원하여 탈탈 털어 내는 행태를 보면서 지난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는 국민은 탄식하리라. 오죽 분노했으면 어느 언론인이 며칠 전 윤석열 검찰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물었겠는가.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검찰의 무자비한 수사와 '야권'에 대한 관대한 '선택적 수사'의 이유를" 말이다. 더구나 검찰의 트로이목마를 성안까지 끌어들이는 실수로 '청와대엔 캅바람, 한국당에 봄바람'이라는 기사 제목이 버젓이 뜰 만큼 위태로워 보이는 데도 사법 개혁이라는 정도를 거쳐 법기강을 세우겠다는 이 정권, 참 인내로 워 보인다. 지난 반년의 '조국 사태'는 선거 혁명으로 이 땅에서 발본색원될 집단의 정체를 드러냈다. 굳이 성탄절에 맞추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과 삼삼들이처럼 머리가 한데 붙은 법원을 통해서 진보정권에게 가장 파괴범들의 능욕을 끼칠 데지만, 외양간 말구유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그 갓난아기가 인류 역사를 '기원전'과 '기원후'로 가름한 사건을 크리스천들은 기억하리라.

社說

'5·18 사적지' 옛 적십자병원 보존 길 열렸다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제11호인 옛 광주적십자병원이 헐리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18 당시 시민군 사상자들이 치료를 받은 적십자병원이 공매 물건으로 나오에 따라 최근 광주시가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광주시 동구 불로동에 있는 옛 적십자병원은 5·18사적지 29곳 중 어느 곳보다 역사적 상징성을 갖는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도심과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이었어서 수많은 부상자를 치료하고 시민의 목숨을 살려낸 곳이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시민들의 헌혈 행렬이 이어지는 등 피를 나눈 광주 공동체가 시작된 장소이기도 하다. 특히 1980년 5월18일 금남로에서 최초로 계엄군의 폭력에 의해 사망한 고(故) 김경철 씨가 이송됐던 병원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5·18민주화운동 이후에도 부상자 치료에 적극 나서는 등 이곳은 적십자정신을 이어간 곳으로 유명하다.

각 계획이 알려지면서 사적지가 아파트나 상업용지로 재개발돼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으며 본보는 여러 차례 기사와 사설을 통해 사적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최근 사적지 매입을 결정하게 됐지만, 100억 원에 이르는 매입가 때문에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일단 내년 1월 공매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최근 5월 단체의 중재로 서남재단 청산인 측과 협의에 나섰다. 다만 적십자병원을 보유한 서남재단 청산인 측이 89억 원(감정가+ a)이라는 막대한 매각가를 요구해 적정 가격 협상은 넘어야 할 과제다. 우리는 광주시의 사적지 매입 결정을 환영하면서, 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청산인 측의 양보로 합리적인 가격에서 매입 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 과정에서 '5월 사적지'가 결코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상공인 위한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 '제로페이'(Zero-pay)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으나 광주·전남 지역에는 가맹점 수가 적고 결제 금액 또한 저조해 소상공인들에게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없앤다는 취지로 지난해 말 정부와 17개 지자체와 은행 및 민간 사업자가 협력해 도입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다. 광주전남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제로페이 도입 1년의 동향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31만 개의 가맹점이 지정돼 있고 내년까지 이를 100만 개로 늘린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광주·전남 지역 제로페이 가맹점은 지난 10월 기준 1만 284개로 전국의 3.4%에 불과하다. 누적 결제 건수 및 금액 역시 전국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로페이가 하나의 결제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기엔 갈 길이 먼 상황

이다. 가맹점 가입과 이용 실적이 저조한 배경으로는 우선 홍보 부족이 꼽히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이지만 정착 당사자들조차 제로페이에 대해 잘 모르거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로페이를 활성화하려면 정책 수혜자인 가맹점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인 소비자들을 위한 차별화된 혜택이 절실하다는 게 연구 팀의 주장이다. 따라서 할인·포인트 누적제 등 인센티브를 늘려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지역 차원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 역시 민간 영역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행정기관부터 제로페이를 적극 이용하고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이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가야 할 것이다.

無等鼓

12월 25일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다. 크리스마스는 원래 영어로 그리스도(Christ)의 미사(mass: 가톨릭의 제의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의식)를 의미하지만, 이날이 예수의 탄생일인 지는 아직까지도 분명하지 않다. 초기 그리스도 교도는 1월 1일, 1월 6일, 3월 27일 등에 예수의 탄생을 기념했다고 알려진다.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로 고정된 것은 3세기 무렵이다. 이는 예수 탄생의 명확한 근거보다는 계절적 요인 등 사회적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종교적 이유도 있지만 12월은 한 해가 마무리되는 달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수확한 곡물 등을 이웃과 나누며 다음 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축제적 성격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추운 겨울을 서로의 온기로 견디며 봄의 희망을 담은 날로 자리 잡아 온 셈이다. 하지만 이번 크리스마스를 앞둔 한반도에는 평화와 희망의 분위기보다는 대결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에 '새로운 선크림'을 요구하며 한반도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연말'을 제시한 북한은 공공연히 '크리스마스 선물'을 거론하는 등 도발을 시사하고 있다. 국제 관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낮은 수준으로는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폐기' 선언을, 더 나아가서는 위성국 ICBM 발사, 최약으로는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북미의 신경전도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맞받아쳤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앞둔 23-24일 중국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등을 의제로 한 중·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를 통해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모두의 바람이 '북미의 협상 테이블 복귀'라는 깜짝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선임기자 tuim@

크리스마스 선물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